

■ 정부 기준금리 전격 인하 왜?

기업 구조조정 여파 경기위축 선제 대응

조선업, 2018년까지 고용 30%·설비 20% 감축 계획 대량 실업·투자 위축 불보듯...美 금리인상 지연도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갠 전격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부진에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자구계획으로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 규모를 20% 각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은 안 그래도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투자가 생산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작년 4분기(28.7%)에서 1.3% 포인트 떨어진 27.4%로 집계돼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총저축률은 36.2%로 전 분기보다 1.8% 포인트 상승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여기에 한은 금통위는 최근 대외적 여건이 기준금리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6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하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3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달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3만8000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내외 금리차 축소로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한은 통화정책도 운신의 폭이 커진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금리인하 파장...서민 생활-부동산시장 '명암'

대출 목마른 서민 '숨통'...이자수입 의존층 '팍팍'

예금·대출금리 조정 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역대 최저점에 머무르는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또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 진입 문턱이 낮아져 대출에 목마른 서민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생활층은 한층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차가 있겠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며 "조만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가 내려갈 전망이어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좀 더 쉽게 은행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생계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작년 6월 기준금리 인하 후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는 이처럼 서민층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만만찮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우선 퇴직자 등 이자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예금 금리 인하로 생활

이 한층 팍팍해질 수 있다.

각 은행의 대표적인 예금 상품 금리가 이미 1% 초중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1%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정기예금 1년물 금리는 1.3~1.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빛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거시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자금 유출과 가계부채에 관한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미시적 대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익형 부동산 인기 상승...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과 5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위축된 재고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나 신규 분양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고주택 매매시장은 이미 올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둔화한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다"며 "대출규제로 일부 위축된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경우 최근 입주물량 증가,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된 저금리가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며 전세난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은 덜해지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만 있다면 임대인들이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물건이 희귀해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더 오르고 임차인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4.17 (-2.91)
- ↓ 금리 (국고채 3년) 1.35% (-0.03)
- ↑ 코스닥 705.08 (+1.09)
- ↓ 환율 (USD) 1156.00원 (-0.60)

한전·중흥건설·금호석화·하림 호남권 4곳 '대기업집단' 제외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확정...금호아시아나·부영은 유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완화 등으로 한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하림 등 광주와 전남·북 지역 기업 4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자산규모를 현재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공기업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뺐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던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빠지게 됐다. 대기업집단에 속했던 이 지역 기업은 금호그룹사인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 부영, 중흥건설, 전북의 하림 등이다.

이 중 공정위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중흥건설, 하림, 한전 등 4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상호·순환출자 금

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사의무 등의 규제를 받았다.

지역경제계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민자사업 진출이나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흥건설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70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했으나 이같은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중흥건설 등 중흥건설사들은 계열간 채무보증으로 부족한 신용도를 채우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각종 규정에 묶여 자금 유동성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광주·전남지역 연고 기업 중 대기업집단에 남아 있는 곳은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2곳이다.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사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대기업집단 변경 제외되는 광주, 전남·북 기업 (단위:개, 10억원)

대기업집단 중 자산순위	기업집단명	총수 (지배기업)	계열회사 수	자산총액 (공정자산)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27	208,286
38	하림	김홍국	58	9,910
50	중흥건설	정청선	49	7,603
6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0	5,14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위해 뛰겠습니다" 9일 김현철(오른쪽 세번째) 금호터미널 대표이사과 방선규(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임직원 교류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 도입, 공연·전시 공동 홍보, 순회공연 및 전시투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호터미널 제공>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